

5·18민주화운동 암매장 발굴 인간힘

5·18민주화운동 암매장 유해를 찾기 위해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가 다시 투입됐다.

조사 장소는 옛 광주교도소 외에 광주공항, 옛 상무대 인근 독방 주변까지 확대 실시된다.

암매장 의심 물체가 탐지된 광주~화순 간 너릿재 인근 도로의 발굴 조사를 위해 광주시를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진다.

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옛 광주교도소 내 4개 구역에 땅속탐사레이더를 투입해 암매장 흔적을 찾았다.

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울타리 넘어 테니스장 근처, 교도소 4개 감시탑 중 남서·북서쪽 주변 2곳,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서쪽 담장 일원 등이다.

교도소 발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3공수 출신 계엄군들이 제보자로 나서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이곳에 3공수 본부대, 11대대, 15대대, 16대대가 유해를 암매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념재단은 지난 주 땅속탐사레이더를 투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땅고르기 작업 등을 마쳤다.

교도소 조사가 끝나면 광주공항과 옛 상무대 인근 독방 주변에도 땅속탐사레이더를 투입한다. 현재 전북에 살고 있는 한 제보자가 5·18 당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암매장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곳이다.

기념재단은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1980년과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제보자가 암매장 유력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자, 땅속탐사레이더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전문업체는 이들 지역의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기념재단에 넘길 예정이다. 재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굴 조사 계획을 다시 세운다.

땅속 60cm 깊이에서 의심 물체가 탐지된 너릿재 일원은 광주~화순 간 도로에 포함돼 있어 발굴 조사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광주시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광주시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너릿재 발굴 조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땅속탐사레이더 업체 분석 전문가와 광주시 담당 부서를 방문, 발굴 조사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너릿재 인근은 5·18 직후 대낮에 군인들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해 미대 자루를 묻고 있었으며 자루 밖으로 나와 있는 시신의 머리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진 곳이다.

기념재단은 암매장 유해나 그 흔적을 찾아내 5·18진상규명특별법

옛 상무대 독방 주변 등 탐사레이더 투입 '의심 물체 탐지 너릿재' 광주시 설득 작업

적을 찾아내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고 정부 차원의 암매장 발굴 등 진상규명 작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검찰의 시신 암매장 기록이 남아 있는 옛 광주교도소 내 공동묘지 주변은 80년 5월 이후 변형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너릿재는 광주시가 협조하면 곧바로 발굴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복판다. 암매장 유해나 흔적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중심이 된 5·18 진상 규명 작업과 정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시가 협조하면 곧바로 발굴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복판다. 암매장 유해나 흔적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중심이 된 5·18 진상 규명 작업과 정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영흥도 낚시어선 현장감식

4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배 선상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광주·전남시민단체 "한미연합 공군훈련 중단" 촉구

"북한과 대화 재개... 평화 협상 해야" "사드저지 광주행동"에는 6·15 공동위 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총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광주진보연대, 민주노동광주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드저지 광주행동'은 4일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공군기지 8곳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진행한다"며 "한미 군용기 230여대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이라고 밝혔다.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풀 수 없고, 분단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대화뿐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 평화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활동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장 무기한 불법유통 및 항만 건설 ▲면허지 불법 임대 ▲면세유 부정 수·공급 ▲토착 공직 비리 사법 등이다.

임형택 기자

완도해경, 해양범죄 근절 위한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안)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 침해사범과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바다가족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사범의 척결과 지역별 민·관 유착 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활동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장 무기한 불법유통 및 항만 건설 ▲면허지 불법 임대 ▲면세유 부정 수·공급 ▲토착 공직 비리 사법 등이다.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활동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장 무기한 불법유통 및 항만 건설 ▲면허지 불법 임대 ▲면세유 부정 수·공급 ▲토착 공직 비리 사법 등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폐유정제업체서 가스 흡입 3명 추락 1명 사망

순천의 한 폐유정제업체에서 가스에 노출된 근로자 3명이 추락,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께 순천시 서면 모 폐유정제업체 에스페르폴리를 반응기(탱크·가로 3m×세로 7m)에서 유모(52)·서모(33)·선모(33)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유씨가 오전 11시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여만에 숨졌다. 서씨와 선씨도 허리 등을 다치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이들은 반응기(60t 규모) 내부 잔류가스 검출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체류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여수화학구조대·화학방제센터 구조대원들과 함께 잔류 가스를 빼낸 뒤 진입, 이들을 차례로 구조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반응기 위쪽으로 가던 중 가스를 흡입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가스의 정확한 성분과 가스 누출 여부, 안전 조치 미흡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조금 횡령' 광주 문화단체 예술감독 입건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 문화단체 예술감독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광주시 보조금을 빼돌려 챙긴 혐의(횡령·사기 등)로 광주시 모 문화단체 전 예술감독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하지 않은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시 보조금 2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뢰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24일 광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6명의 민정일치로 A씨를 예술 감독 자리에서 해촉했다.

앞선 4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신봉우 기자

출소 14일 만에 절도 50대 여성 구속영장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4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4일 절도혐의로 장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15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75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인 3일 같은 사무실에 다시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달미를 잡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절도로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점 출입문 깨고 침입 금품 훔친 40대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영업을 마친 상점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A(43)씨를 이간건조불법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6분께 부산 남구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침입해 오토바이 헬멧(시가 6만원)과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 30분께 인근 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본 물품을 자전거로 옮기는 사이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판매점에 침입해 헬멧을 쓰고 도주하는 용의자의 도주로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효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